

이제 시작입니다

말도 많고 곡절도 많았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지난 2월에 발효된 데 이어 최근에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인쇄출판문화산업을 참여정부 5년내에 동북아시아 중심 국가로 성장시킨다는 야심에 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쇄문화산업 진흥방안을 보면 인쇄역사문화관 건립지원, 해외도서전 참가지원, 인쇄축제 개최지원, 파주인쇄단지 조성지원, 인쇄시설 현대화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발표된 8대 정책과제를 놓고 보면 인쇄산업에 대한 지원이 출판산업의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법률제정에서부터 각종 공청회를 거치고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업계 스스로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해 온 인쇄단체장들과 관련인사들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이 정도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문화관광부에서 열의를 가지고 인쇄문화산업 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선 일도 인쇄업계에서는 고맙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법률 이름에 '인쇄'가 들어있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방안이 발표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저절로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인쇄인들의 결집된 힘

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정부의 지원정책도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계의 선도적 사업추진에 힘을 보태 준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정부가 납득할만한 사업의 전개가 있어야 하며 자금지원을 얻으려면 민자 출연

도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무턱대고 정책지원이나 자금지원을 요청해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여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쇄문화산업이 출판문화산업에 비해 밀리고 있는 실정이며 인쇄문화산업의 인프라 구축도 취약한 수준이고 국제경쟁력은 물론, 국내 타산업에 비해 보더라도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

이제는 인쇄인들이 팔을 걷고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인쇄를 출판의 종속변수로 보는 잘못된 시각도 바로 잡아야 하며 인쇄가 문화와 산업적인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수주산업이 지니는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대 흐름에 맞는 수요창출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주 등 부정적인 장애물들도 하루 속히 떨쳐버려야만 할 때이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세익 · 편집주간〉



이제는 인쇄인들이 팔을 걷고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인쇄를 출판의 종속변수로 보는 잘못된 시각도 바로 잡아야 하며 인쇄가 문화와 산업적인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한다.